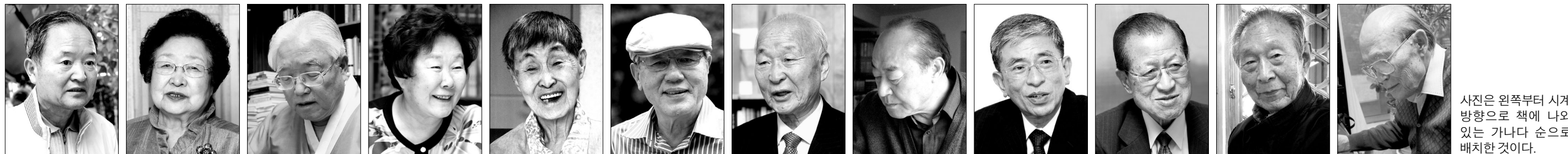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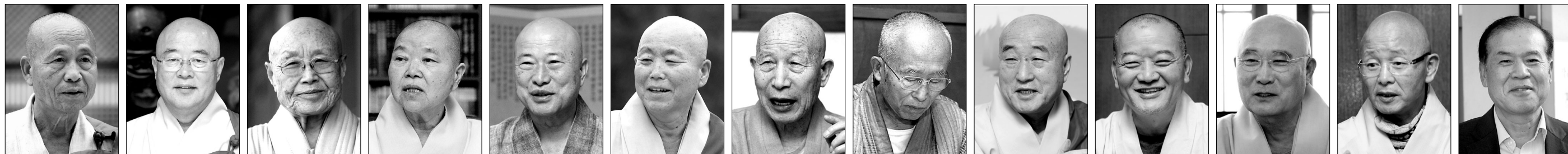


봉사와 헌신의 삶... 이 시대의 보살·신행의 길잡이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책에 나와 있는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은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나의 신행'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25명의 인터뷰를 묶은 것이다. 이 기획은 제 20회 불교인문문화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

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이끌고 있는 성운 스님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원을 참으로 많이 세웠고 그때마다 절실하게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서원과 정진에 항상 현재진행형임을 삶으로 보여주었다. 40년 동안 어린이 포교의 기수 역할을 해 온 성일 스님(화성 신홍사)은 10년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30년 두문불출 기도 정진을 25년째 하고 있다. 스님의 서원은 부처님 교화공원 대자 불사였다.

구룡사 등 20여 포교당을 창건한 도십포교의 개척자인 정우 스님은 "나눔'이 서원이다. 스님은 배려와 사랑을 지니고 친절함 미소를 머금은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니



나의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우리출판사 펴냄 1만2천원

고 가꿔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경전 한글화 등 역경불사의 산증인인 前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생각하는 서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원을 가졌다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서원이라면, 그것을 철저한 화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불교는 서원 세우고 실천하는 종교 불교계 명사 25인 서원과 신행 "함께 행복합시다" 현재진행형

다. 철저할때만이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맞춤형 포교의 대부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찾아가는 포교와 감동과 환희를 불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서원"이라고 밝혔다. 부산 불교복지의 지평을 연 전 포교원

장 혜충 스님도 "이제 수행과 포교는 세상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갖춘 불교타운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서원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있는 전유물이 아니었다. 봉사단체 작은손길의 김광하 대표는,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요, 자비심을 놓지 않고 겸손을 지키며, 보시를 통해 만날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서원인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었다. 27년간 108배 수행을 한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며 앞으로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보현행원으로 살아가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한강진 한진공업 회장은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그

리면서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라 생각했다."며 불서 저술과 법보시에 매진하는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영은 행원문화재단이사는 관공 스님에게 받은 불명을 너무나 거룩하게 평생동안 실천해 온 인물이다. 그의 법명은 바로 행원(行願)이다. 원을 세우고 잘 실천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의미인데, 미수를 남긴 주 이사장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 나눔 불사를 원으로 세우고 실천해 왔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25명의 명사들은 자신의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에 평생 집중하고 매진하며, 이를 실천에 옮긴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부와 명예가 있던 있던 간에 삶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다. 그것은 분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원의 힘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127@hyunbul.com

놓거나 새롭게 태어나야 깨달음에 도달

알아차림의 기적

아남 틈낸 지음 | 이창영 지음 | 담앤북스 펴냄 1만2천원



우리에게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날까? 저자는 우리의 의식을 뒤집어서 느닷없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우리의 의식이 지어내는 모든 것을 즉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과 '판별'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 망상과 슬픔, 분노, 미움, 외로움, 불안, 시기심, 경쟁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실 행복과 고

통, 깨달음과 속박 등은 우리의 의식이 하는 화려한 놀이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들을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 집착, 착각, 강박이 일으키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두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순간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서 경이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사원에서 여러 스승들에게 수행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주로 서구인들을 상대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연유여서 그런지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

지던 '불교'와 '수행'을 아주 쉬운 일상의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 그것도 바로 '일상의 삶'에서의 깨달음이다. 저자는 삶을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애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느라

저자 티베트 수행자들에게 지도받아 수행의 최고 비결은 바로 '자비심'

매일 온갖 번뇌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의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삶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삶을 통제하려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생각은 정말 비현실적이며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은 깨달음에 대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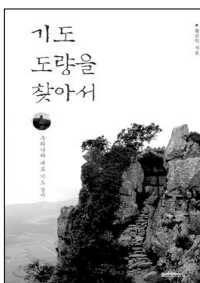
마지막 부분에서 유달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다. 티베트 불교가 유독 자비심을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수행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자비심이라고까지 정의한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희망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 줄 때 깨달음은 '세상 속'에서 제 기능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 대표하는 기도 성지 총망라

기도 도량을 찾아서

황찬익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6천원



힌 저자가 전국의 수많은 사찰 중 대표적 기도 도량 26곳을 찾아 소개한 것이다. 그곳에 깃든 불보살들의 재미난 이야기와 사찰 기도에 얽힌 유래를 들려준다. 물론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절 가운데 기도

처가 아닌 절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오랜 세월 조상들의 발걸음과 기도 원력이 커져서 쌓인 영험한 절을 간다면 신심더 더 고취되고 기도도 여법해 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잘 알려진 3대 관음기도처, 3대 지장기도처, 3대 독성기도처 및 5대 적멸보궁을 함께 묶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의 기도성지를 처음으로 한데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보살은 오히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다. 보살 외에도 약사, 아미타, 미륵 같은 현세나 내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부처님도 매우 친근한 기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산신이나 칠성, 독성 같은 민족 신앙과의 습합을 통해 기도의 대상이 된 분들이 기도영험은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의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호법봉사단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려하나,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후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범행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승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천연식초학교 개강

일시 : 2014년 2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 종로 5가 한국효소협회 본원
문의 : ☎ 02)762-4688, 010-3763-1101

다음카페 "한국효소협회"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식초학교 : 주중반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발효효소과정 : 일요반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약용식물과정 :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발효천연화장품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5층 (사)한국효소협회 (종로 5가역 3번출구 150m선치과 5층)

스님 신발 &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 ₩ 35,000원 (※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 (예금주 : 박선영)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338-5408 / 018-556-8911